

2024 라오스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지표	5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2024년 라오스 관광의 해를 맞아 관광업 활성화	6
나. 2024년 아세안 의장국 수입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	7
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형성 계획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 활성화 전망	9
라. 대형 유통망 중심의 리테일 비즈니스 시장 확대 추세	10

II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2
2. 시장 분석	26
가. 전략적 가치 및 시장 특성	26
나. 교역	27
다. 투자	30
라. 건설 플랜트 분야 유망 프로젝트	33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34
가. 교역	34
나. 투자 진출	37
다. 협력 유망 분야	39

III 진출전략

1. PEST 분석	42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43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44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51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54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56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7

Chapter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3년 경제성장률을 연초(2023년 4월) 기대한 4.0%에서 3.7%로 하향 조정(2023년 9월)

-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높은 인플레이션율, 만성적인 대외부채 등이 경제 악재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은 라오스 주요 수출대상국이자 투자국으로서 태국 다음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으며 (2022년 국별 수출액 비중 27.4%) 외국인 투자금액이 가장 높은 나라로,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시 라오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21) 8.4% → ('22) 3% → ('23) 4.3%(예측치)
 - 라오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이 ('21) 3.7% → ('22) 23.0% → ('23.9월) 34.4%로 지속 상승하고 있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음
 - ADB에 따르면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이 2021년 76%에서 2022년 97%로 상승하여 경제 불안정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구	백만 명	7.00	7.11	7.21	7.32	7.43	7.48	7.58	7.69
명목GDP	십억 달러	17.06	18.13	18.77	18.51	18.53	15.30	14.09	13.94
1인당 명목GDP	달러	2,437.1	2,551.8	2,602.6	2,529.0	2,496.0	2,046.9	1,858.4	1,813.8
실질성장률	%	6.9	6.3	4.7	△0.4	2.1	2.3	4.0	4.0
실업률	%	3.3	3.3	3.3	3.6	3.6	2.6	2.9	-
소비자물가상승률	%	0.83	2.0	3.3	5.1	3.7	23.0	28.0	10.0
재정수지(GDP대비)	%	△5.5	△4.7	△3.3	△5.6	△1.3	△1.6	△3.4	△3.4
총수출	백만 달러	4,420	5,189	6,157	6,577	8,342	9,885	-	-
(對韓 수출)	"	27	30	39	44	49	85	-	-
총수입	"	5,940	6,241	6,936	6,009	6,971	8,215	-	-
(對韓 수입)	"	92	84	75	50	71	64	-	-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1,519	△1,052	△779	568	1,371	1,669	-	-
경 상 수 지	십억 달러	△1,903	△2,350	△1,711	△0,953	△0,107	△0,912	△0,368	△0,863
환율(연평균)	현지국/US\$	8,245	8,401	8,679	9,057	9,745	14,324	-	-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0.1	-	-	-	-	-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6.86	13.58	7.56	9.68	10.72	5.28	-	-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년은 전망치

자료: IMF(인구, 명목GDP, 1인당 명목GDP, 실질성장률, 재정수지, 경상수지), ILO(실업률), GTA(수출입, 무역수지), BANK OF LAO(소비자물가상승률, 환율), UNCTAD(해외/외국인 직접투자)

- ※ 라오스 정부는 2024년을 '라오스 관광의 해'로 지정하여 관광산업 회복 전망
- ※ 2024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에 따른 ODA 유입효과 클 것
- ※ 탄소배출권 시장 형성에 따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시장 활성화 전망
- ※ 대형 유통망 중심의 리테일 비즈니스 시장 확장세

가. 2024년 라오스 관광의 해를 맞아 관광업 활성화

▣ 라오스 방문의 해(The Visit Laos Year 2024) 지정에 따른 관광업 활성화

- 정부는 2024년 관광객 유치 목표를 460만 명으로 수립
 - 관광수익 창출 목표는 7억 1,200만 달러로, 이 중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수익 목표는 4억 달러
 - *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9년 관광객 수는 419만 명으로 9.3억 달러의 관광수익 획득
 - 라오스 신년(4월), 타투앙 축제(11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예정
 - 관광객 유입으로 매출액 증가가 기대되는 관련 업종(숙박·식당 등)의 GDP 비중은 25%로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
 - * 지난 10월 IMF의 발표에 따르면 관광수입, 외국인투자, 수출이 2024년 라오스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
- 라오스-중국 철도 개통에 따라 라오스 관광객 유입 효과 상승
 - 2021년 말 철도 개통 이래 일평균 5,000명, 일일 최대 1만 명, 총 323만 명 이상의 승객 수송
 - 라-중 철도공사는 철도 승객 증가에 따라 운행 열차 추가

〈지난 5년간 라오스 관광객 유입 수〉

(단위: 만 명)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월
관광객 수	419	479	89	-	129	160

자료: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

나. 2024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

▣ 2024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식 개최

- 라오스는 지난 9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2023년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로부터 차기 아세안 의장국 권한을 수임받음
 - 라오스 쏘싸이 시판돈 총리는 수임식에서 ASEAN 경제협력 강화 외에 탄소중립 추진, 디지털 전환 및 경제통합 촉진 등을 강조
 - 의장국은 국가의 영문명 기준 알파벳 순서에 따라 돌아가며 수임

▣ 공공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증가 추세

- 2024년 아세안 의장국 준비 및 이행에 관한 국가운영위원회 발족('23.6월)
 - 정부 지도자, 대표단 및 외신기자를 위한 숙박시설, 회의 장소, 통신설비, 관광지 등 인프라 개발 활성화에 따른 건설중장비 시장 성장 전망
- 라오스 비엔티안-베트남 봉양 항구 철도 건설,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확장 개발사업과 같이 큰 규모의 프로젝트 증가
- 라오스가 발표한 제9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2021~2025년)에도 6대 목표 중 하나로 '인프라 강화를 통한 역내 및 국제사회 통합에 합류'를 제시하며 내륙항 및 공항 개발에 집중

〈주요 기반시설 투자 우선순위 사업〉

종류	사업 수 (개)	사업 진행 현황
도로	6	루앙남타-싸양꼭(라오스-미얀마) 교량 루앙프라방-디엔비엔푸 루앙프라방-쌔노아-GMS 북동부 운송로 위앙-비엔티안특별시-타곡 구간 개선 8번 국도 개선 18A 국도 피아파이-앗따브
고속도로	4	3번 고속국도 160km 13N번 고속국도 420km 12S 고속국도 560km 비엔티안-하노이 간 고속도로 725km
교량	3	쑤멧-루앙프라방 라오스-태국 제5 우정의 다리(쁘싼-봉간) 라오스-태국 간(살라완-우본)
하항	4	남중국-라오스 북부, 태국 및 미얀마를 연결하는 내륙 항로 333km
물류시설	내륙항(9) 물류단지(4) 국경통관시설(20)	물류단지 1개소는 완공 및 운영 중 그 외 사업타당성 조사 혹은 건설 단계
공항	20	국제공항 3개소에 대한 개발 또는 개선 필요

자료: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

▣ 국가협력전략*(CPS) 외 ‘디지털 협력, 기후변화 등’ ODA 사업 발굴 확대 중

* 물관리, 보건위생, 에너지, 지역개발, 인적자원 육성

- 과거 2016년 라오스가 아세안 의장국 수임 당시 다수의 ODA 프로젝트가 유입된 사례가 있어 차년도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유무상 ODA 프로젝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사례 : 의장국 개최 당시 라오스-중국 고속철도(59억 9,000만 달러 규모) PPP 프로젝트화에 대해 기초 합의

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형성 계획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 활성화 전망

▣ 라오스는 현행 일본 정부와 JCM(The Joint Crediting Mechanism)에 기반하여 G2G 탄소배출권 거래 추진 중

〈태양광 및 레드플러스(REDD+) 프로젝트 개발 현황〉

연번	프로젝트명	운영기간 (혹은 승인시기)	주관부처	연간 탄소 저감분 (tCO ₂ e)
1	Lao PDR Energy Efficient Datacenter Project	5년(2017)	기술통신부	567
2	Introduction of 14MW floating solar power system in Vientiane	17년(2020)	에너지광산부	6,838
3	Installation of Amorphous high efficiency transformers in power distribution system	18년(2022)	에너지광산부	2,109
4	Introduction of 11MW solar power project in Savannakhet Province	17년(2021)	에너지광산부	4,795
5	14MW solar power project in Vientiane Province and Borikhamxay Province	2020	에너지광산부	약 8,000
6	19MW solar power project in Xiang Khouang Province	2021	에너지광산부	약 8,000
7	REDD+ in Luang Prabang through controlling slash and burn	3년(2015)	농업임업부	미정

자료: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 라오스는 국토의 약 70%가 산림지역으로 그린성장 관련 프로젝트 개발 기회 다대

- 한국-라오스 간 기후변화 대응 기본협약 및 양국 부처 간 MOU 체결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관련 분야 프로젝트 진출 기회 증가
 - 레드플러스(REDD+), 소수력, 태양광, 매립가스 포집, 제조업 혁신 분야가 유망

라. 대형 유통망 중심의 리테일 비즈니스 시장 확대 추세

▣ 라오스 유통산업의 복합쇼핑몰 오픈 및 지점 확장 계획에 따라 프랜차이즈 진출 기회 증가할 것

- 태국 Big C, 코라오그룹 등 하이퍼마켓 신설 계획 발표
 - 태국 Big C는 2024년까지 ITECC 쇼핑몰 근처에 2층 높이, 8,500m² 크기의 하이퍼마켓 1곳을 건설할 계획
 - 코라오그룹은 2023년까지 동독(DongDok), 빠뚜싸이(Patuxay), 돈찬(Donchan) 지역에 대형 메가몰 오픈 계획
- 비엔티안특별시 내 주요 유통업체 점포 확장 움직임
 - 2019년 주요 유통업체의 점포 수가 25개에서 2023년 9월 기준 149개로 496% 증가
 - 세븐일레븐은 지난 7월 1호점 개점을 시작으로 라오스 매장 수를 700개로 확장할 계획을 발표
 - 콕콕마트는 지난 3월부터 라오스 주요 시내 곳곳에 미니마트를 설치 중이며 3년 내 전역에 1,000개의 미니마트 구축 예정

〈라오스 주요 유통업체 점포 수 변화 동향〉

브랜드명	코로나19 이전 점포 수(개)	2023년 말 예상 점포 수(개)	증감률(%)	비고
J- Mart	4	10	150	현재 9개 점포 운영 중
Kok Mega M	0	2	-	현재 1개 점포 운영 중 2025년까지 17개 점포 확장 예정
Kok Mini M	0	100	-	현재 5개 점포 운영 중 2025년까지 2,000개 점포 확장 예정
Sokxay Mart	12	20	67	-
Xokthavy Mart	8	11	38	-
Seven Eleven	0	2	-	현재 1개 점포 운영 중 총 700개 점포 확장 예정
D-Mart	1	4	300	-
계	25	149	496	-

자료: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체 조사

Chapter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라오스는 사회주의 체제 1당 지배 국가로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음
- ※ 3고 현상(高환율, 高물가, 高대외부채)으로 라오스 디폴트 위기설 확산
- ※ 3고 현상 타파를 위해 라오스 정부는 세수 확보, 수입 통제 강화 등의 대응책 강구

가. 정치 환경

■ 인민민주공화제 1당 체제로 안정적 정치 환경 유지

- 라오스 왕정이 폐지되며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수립 (1975년 12월 2일 전국인민대표자회의)
 - 사회주의 정부 수립 이후 근본적인 정치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 (1당 체제)
 - *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은 인민의 주권이 라오인민혁명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제도를 통해 행사되며, 모든 권한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기본적 구성 요소로 하는 전 인민의 이익을 위해, 인민에 의해 행사되는 인민민주국가로 규정(헌법 제1장)
- 중국·베트남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 정치적으로는 라오인민혁명당 중심의 1당 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있음
 - 국가원수인 주석, 행정수반인 총리와 국회의장 등 정부 주요 인사가 라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 담당 정치국원을 겸임하는 집단지도체제

■ 행정부 구조

- 중앙정부
 - 주석은 라오스의 국가원수로, 국회의 의결로 선출 (출석의원 2/3 이상, 임기 5년)
 - 총리는 국회 승인을 받아 주석이 임명하며, 행정부 지휘/감독 권한이 있음
 - 중앙정부 조직은 17개 정부 부처, 2개 장관급 기관(총리실 및 중앙은행)으로 구성됨
 - * 현 정부는 기존의 과학기술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산업통상부, 기술통신부, 교육체육부, 농림부, 에너지광산부로 분산하였으며, 2022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부총리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함

〈라오스 정부 부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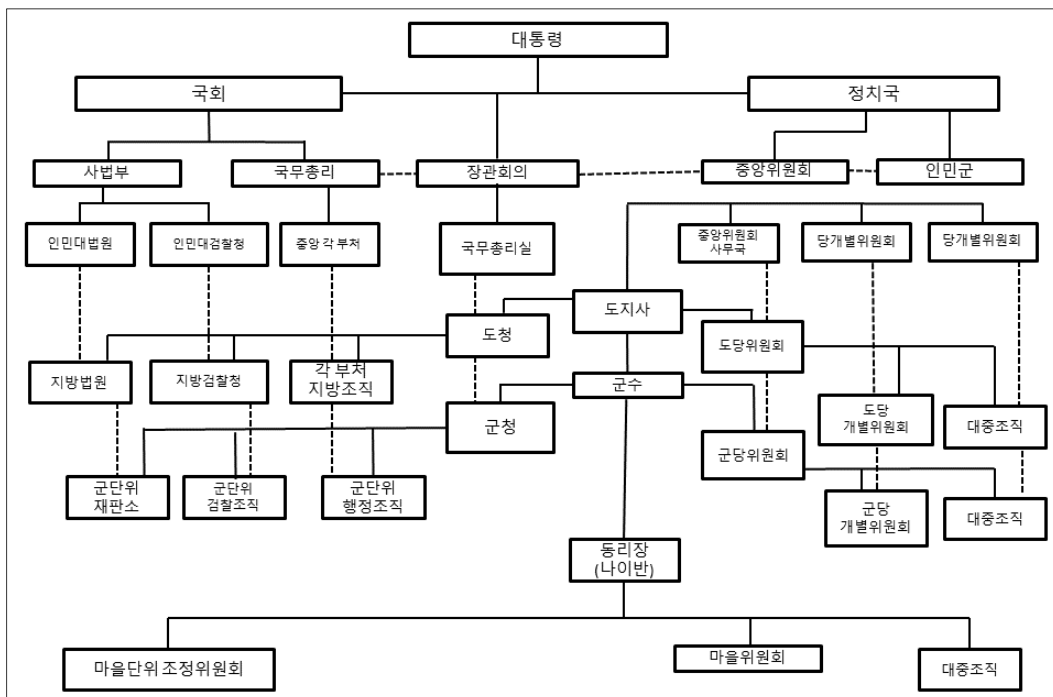
연번	부처명(국문)	부처명(영문)
1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	공안부	Ministry of Public Security
3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4	기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5	기술통신부	Ministry of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6	농임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7	천연자원환경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
8	노동사회복지부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Welfare
9	정보문화관광부	Ministry of Information, Culture and Tourism
10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11	공공사업교통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12	교육체육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
13	보건부	Ministry of Public Health
14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15	내무부	Ministry of Home Affairs
16	에너지광산부	Ministry of Energy and Mines
17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주: 총 17개 부처

• 지방정부

- 행정구역은 1개 특별시(Vientiane Capital) 및 17개 주(州)로 구분
- 각 주는 시(Nakhon), 군(Meuang), 마을(Ban) 단위 행정구역으로 구분됨
- 비엔티안 특별시장 및 주지사는 총리가 제청하고 주석이 임명함
- 각 주/군/마을은 주지사/군수/동리장 및 산하 각 부서/사무소/센터로 구성

〈라오스 정부 조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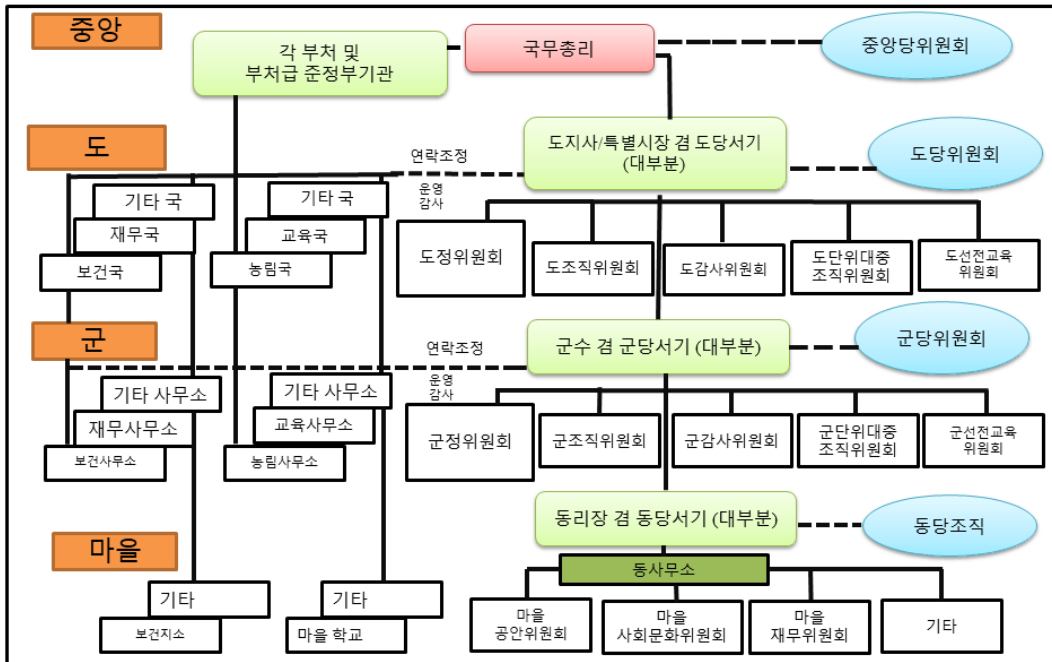


자료: 라오스 총리실

- 감사제도

- 국가감찰법 및 회계감사법에 따라 국가 예산, 재정, 국유재산 관련 사항을 감독하는 것으로, 중앙 및 각 행정구역 단위로 구성된 감사조직이 담당함
- 라오스에서는 국가회계감사원(회계감사) 및 국가감사위원회(감찰) 2개 기관이 역할을 맡고 있으며, 2021년 신정부 출범 시 주식 직속기구로 개편하여 감사 조직 독립성 및 국가주식의 감독 권한을 강화함
- 국가회계감사원 및 국가감사위원장은 감사 및 감찰 사항을 국회, 국무총리,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라오스 중앙-지방 간 조직 관계도〉



자료: 라오스 국회, 관보

■ 입법부

- 국회는 단원제로, 의원 정수는 164명이고(여성 의원 36명) 임기는 5년임
- 국회의원 모두가 라오스 유일 정당인 라오인민혁명당(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 소속이면서, 당 산하단체인 라오국가개발전선(Lao Front for National Development) 일원임
- 의원은 직접선거/보통선거로 선출되며, 피선거권은 만 21세 이상,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 부여됨
 - 각 선거구(총 18개 선거구: 비엔티안 특별시 및 17개 주) 주민은 선거구에 배정된 국회의원 수만큼 복수로 투표하며, 국회의원은 득표 순으로 선출됨
 - 라오스는 2015년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제도를 도입했으며, 2022년 2월 제9대 국회의원 및 제2대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함
 - * 총 유권자 4,053,151명 중 3,973,017명이 투표하였으며(투표율 98.02%),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입후보자 224명 중 164명,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입후보자 788명 중 492명을 선출

- 라오스 국회는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와 외교위원회, 기획재정감사위원회, 법무위원회, 경제기술환경위원회, 문화사회위원회, 소수민족위원회, 사법위원회, 국방공안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사무처 등으로 구성
 - 국회의장, 부의장 5명, 9개 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등 총 16명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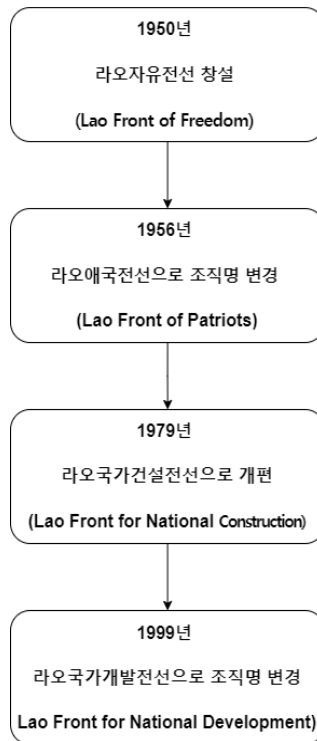
■ 사법제도

- 라오스의 법원은 지방인민법원-주법원-최고인민법원으로 구성
 - 재판심급제도는 3심제로,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모두 심판하는 사실심은 항소심까지로 국한하고 상고심에서는 법률문제만을 심판하는 법률심만 진행
- 재판은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공개로 진행되며, 법률고문평의회가 국선변호사로서 피고인을 변호함
- 검찰청은 독립기관으로 중앙 최고인민검찰청 및 주/군별 지방검찰조직으로 구성

■ 정당 및 주요 단체

- 라오인민혁명당(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
 - 1930년 창설된 베트남의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모델로 1995년 3월 결성됨
 - 당원 수는 약 30만 명, 2021년 제11차 전당대회에서 중앙위원 71명*, 예비위원 10명을 선출
 - * 71명의 중앙위원 중 12명이 여성 의원
 - 당 중앙위원회 최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정치국원(Politburo)은 13명으로 구성
 - 당의 기본 노선은 인민민주제 확립을 통한 라오스 평화, 독립, 단합, 번영임
 - 중앙위원회 외에도 주/군/마을 등의 행정구역별로 당 지방위원회가 있으며, 전당대회(National Congress)는 매 5년, 당 중앙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
 - * 전당대회 및 중앙위원회에서는 당의 지도방침, 당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 등을 결정함
- 라오국가개발전선(Lao Front for National Development)
 - 라오스 사회주의 정부 수립 후, 전신인 라오애국전선을 대체해 1979년 창설되었으며, 라오스의 평화, 독립, 사회주의 건설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라오국가개발전선 연혁〉



자료: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체 도식화

- 라오인민혁명당의 활동을 돕는 민족통일전선조직으로, △지역주민 협동조합 조직, △정신개혁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농촌지역 개발, △민족 간 통합 도모를 위한 다민족 협동조합 조직의 역할을 맡고 있음

■ 라오스 정부 동향

- 2022.6월 제3차 정기국회에서는 내각 교체 및 부총리 추가임명안이 승인됨
 - 산업통상부 장관 및 라오스 중앙은행 총재 교체(Malaithong Kommasith 장관 (前 국가회계감사원장), Bounleua Sinxayvoravong 총재(前 재무부 차관) 임명)
 - 부총리 2명 확대(Vilay Lakhamfong公安부 장관, Saleumxay Kommasith 외교부 장관)
- 2022.12월 제4차 정기국회에서 총리 교체
 - 판캄 비파반(Phankham Viphavanh) 전 총리가 사임하고 쏘싸이 시판돈(Sonexay Siphadone)이 제9대 총리로 임명

- 2023.1월 주요 부처에 대한 장관 교체
 - 재무부 장관(Santiphab Phomvihane), 공공사업교통부 장관(Ngampasong Muongmany), 에너지광산부 장관(Phoxay Sayasone)

나. 경제 환경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상황 먹구름 지속(3고(부채, 환율, 물가) 현상)

- ADB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이 76%에서 2022년 말 기준 97%로 상승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평균 13억 달러를 상환하여야 함
 - 외환보유고는 11억 달러(2021년 말 기준)에서 15억 달러(2023년 6월 기준)로 여전히 부족한 상태 지속
 - * 신용평가기관인 Fitch Ratings는 높은 대외부채, 낮은 외환보유고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CCC('20.9월)에서 CCC-('22.8월) 하향 조정했으며 2022년 10월 장단기 외채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를 철회한 바 있음
- 하반기부터 환율이 급등하며 중앙은행 환율 기준 9.22일 미화 달러당 20,000꺾 돌파 후 지속 상승 추세
 - 중앙은행 환율 기준, 연초 대비 환율이 미화 달러당 17,336꺾(2023.1.3)에서 지속 상승 추세로 미화 달러당 20,712꺾(2023.11.3)까지 상승(19.5%)
 - 실질적인 환전이 발생하는 사설시장 환율은 2023.11.3일 기준 달러당 23,600꺾으로 이상* 현상 지속 중
 - * 경제 전반적으로 정상 범위로 생각한 환율의 마지노선은 달러당 20,000꺾으로 6.20일 이후 이를 초과한 상태
- ADB에 따르면 2023년 평균 인플레이션율이 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난 4월 16%로 전망한 예측치에서 상향 조정
 - 라오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이 ('21) 3.7% → ('22) 23.0% → ('23.9월) 34.4%로 지속 상승
 - 2024년 인플레이션율은 2023년 전망치보다 15%p 낮은 10%를 예상하고 있으나 지난 4월 발표한 전망치 5%에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물가 상승 기대가 쉽게 잠잠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 2022년 5월 유류 부족 대란 경험에 따른 불안감 팽배

- 은행의 달러 부족 및 정부 유류 가격 제한으로 2022년 5월 유류 공급에 차질 발생
 -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유류대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긴급 감면하고, 재무부는 석유 공사에 2억 리터의 유류 수입을 위한 보증을 제공하면서 차츰 회복
- PTT라오(태국계 정유사) 측의 유류 공급 제한 공지문 발표에 유류 부족 사태 재현
 - 주유소에 차가 줄을 서고, 휘발유를 비축하려는 시민들로 도로 혼잡 발생
 - 라오스 석유공사에서 유류 공급에 문제가 없음을 알리는 통지문을 발표하면서 안정화
- 유류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낮은 외환보유고, 자국화 가치 하락, 글로벌 유가 상승 등으로 유류 대란에 대한 불안감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환율 상승으로 제조 노동력 부족 문제 심화에 따라 최저임금 긴급 상황

- 인근 국가 대비 낮은 최저임금과 인플레이션 심화로 노동력 유출 심각
 - 태국의 최저임금은 일일 353바트로 월 기준 약 211달러이며, 라오스의 최저임금은 월 130만 킵(약 70달러)으로 3배 이상 차이
 - ADB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라오스 인플레이션율이 평균 35.4%를 기록했으며, 식자재에 대한 인플레이션율은 45.6% 상승
 - 올해 해외에서 취업한 31,394명의 기술노동인력 중 30,200명이 태국에서 취업했으며, 2022년 기준 해외에서 취업한 라오스 노동자 규모는 약 50만 명으로 집계
 - * 자료: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 라오스 정부는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구매력 하락, 자국 노동자의 해외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
 - 라오스 총리실은 7월 정부 정례회의에서 10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130만 킵에서 160만 킵으로 인상하기로 결정
 - * 라오스 최저임금(킵/월) : ('22.7월) 120만 → ('23.5월) 130만 → ('23.10월) 160만

▣ 청정국가 라오스, 매력적인 제조업 투자처 및 탄소배출권 확보 시장으로 부상

- 동남아 진출 제조업체의 비용(인건비, 수도세, 전기료 등) 부담 증가, 노동법 강화(베트남, 캄보디아), 정치적 불안정성(미얀마) 등의 영향으로 라오스 진출 관심
 - 인접국 대비 낮은 최저임금, 높은 비율의 젊은 인구, 값싼 수도세 및 전기세, 타국 대비 적은 공휴일 수, 사회주의 1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안정성 등이 강점
 - 2024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에 따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
- 라오스 정부는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국가 녹색성장전략 등을 채택
 - 라오스는 2015년 아시아 최초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NDC')를 제출한 국가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임
 - * 2030년까지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감축 추진
 -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지원을 받아 △재정, △금융, △교육, △노동/사회복지, △보건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방향 수립

다. 산업 환경

▣ 산업구조

- 2022년 산업별 GDP 비중은 3차산업 41.6%, 2차산업 38.3%, 1차산업 20.1%
 - 코로나19 이후 인프라·광물 프로젝트 활성화에 따라 전년 대비 2022년 GDP 증가
 - * 건설 분야 GDP 증가(20.0%), 광물 분야 GDP 증가(4.7%)
 - 농산물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국 생산성 향상 노력으로 전년 대비 2022년 GDP(증가율 32.6%) 및 GDP 비중 증가('21년 11.8% → '22년 13.3%)

〈산업별 GDP 비중〉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1차산업	18.10%	20.10%	2.0%p
2차산업	38.60%	38.30%	-0.3%p
3차산업	43.30%	41.60%	-1.7%p

자료: 라오스 통계청

- 라오스 정부는 ‘2025 산업발전전략’을 통해 식품 및 음료 가공, 농산물 및 목재 가공, 건설자재, 의류 등의 기초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
 - 광물/화학 가공, 전자/전기 장비, 수송/농업용 부품/장비 등이 주력 분야
 - 총 28,000여 개의 공장 중 소규모 7,152개, 중규모 947개, 대규모 공장 760개 수준

■ 라오스 고물가 시기 속 가격정찰제 위주의 소비 트렌드 형성

- 라오스 경제는 3고(高환율, 高물가, 高대외부채) 현상으로 경제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격정찰제를 내세운 식당 및 상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음
 - 라오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소비자 물가지수 등락률이 3.83%에서 2022년 18.46%로 5배 가까이 증가하여 소비자의 가격 부담이 커짐
 - 이에 한국의 다이소와 같은 ‘만깍’(약 0.5달러) 매장 점포 수가 확대 추세

라. 정책·규제 환경

■ 3고 현상 타파를 위한 정부의 대응정책

- 라오스 쏘싸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 총리는 지난 8.21일 정부각료회의에서 외화 유입 확대와 세수 확보를 위한 8가지 정책 방향성을 제시
 - 라오스의 주요 외환 유입 경로는 관광, 해외 근로자의 자국 송금, 수출, 외국인 투자 등으로 정부는 자국 내 외환 유입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연번	정책방향	목적
1	유류 수입기업에 대한 외화 공급 활성화	유가 안정
2	외화 거래 체계의 현대화	외화 거래 투명성 확보
3	세수 확보의 정상화 및 투명성 확보	세수 확보 시스템화
4	수출/수입에 연관된 금융 거래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개선	수출대금 회수
5	외국환 환전소의 확충	외화 거래 양성화
6	라오스 내 외화 거래를 조작하는 집단에 대한 통제권 확보	외환거래 안정화
7	투자 유치 환경 개선	외화 유입 촉진
8	경제 성장을 주도할 메가 프로젝트 지속 지원	외화 유입 촉진

- 특히 수출대금의 자국 내 유입이 적다는 판단* 하에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아래 13개 업종의 무역거래상(수출, 수입, 서비스)에 대해 수출입업 등록을 하고, 등록 후 10일 내 상업은행 내 수출입 전용 계좌를 개설 및 중앙은행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함

* 2022년 130억 달러의 무역흑자에도 수출 대금의 약 30%만 자국으로 유입

〈긴급 수출입업 등록 대상 업종〉

연번	취급 제품군	HS 코드
1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0105, 0207, 0407
2	돼지고기 제품류	0103, 0203
3	소고기 및 버팔로 관련 제품	0102, 0201, 0202
4	틸라피아 물고기 및 생선류	0301994100, 0302710000, 0303230000, 0304310000, 0304510000, 0304610000, 0304930000
5	야채 및 과일류	07, 08, 1005
6	쌀(미가공품 포함) 및 현미	1006
7	식품류(인스턴트 커피, 티, 음료수, 소금, 발효 생선류, 사탕수수 설탕)	0901, 0902, 220110, 250100, 0305640000, 0305310000, 0305440000, 0305520000, 170191, 170199
8	동물 사료(인스턴트 제품 포함)	2309
9	비료(화학비료, 바이오 비료 등)	31
10	건설자재(시멘트, 철강스틸 제품, 페인트)	2522, 2523, 72, 73, 3208, 3209, 3210
11	소비재(삼푸, 세제, 티슈)	3401, 3402, 4803
12	자동차	8701-8711
13	유류, 연료, 엔진오일 및 가스	2710-2711

자료: 라오스 산업통상부 고시자료

- 라오스 재무부는 지난 10월 대외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세금 조정 논의, 대외 수입량이 높은 자동차, 주류, 담배, 음료수, 사행성 게임기 품목에 대해 내국 특별소비세를 상향할 것을 발표
 - 부가가치세 역시 현재 7%에서 10%로 높이는 방안 논의

〈라오스 내무부 내국 특소세 조정 초안〉

제품군	제품명	기존 2021년 발표 (%)	7.25일자 기준 조정안 (%)	최종 인상 확정 내역 (%)
모터사이클	전기바이크	0	3	기존 유지 (0%)
자동차	1000cc 이하	26	31	작동
	1000~1600cc	31	41	작동
	1600~2000cc	36	56	작동
	2000~2500cc	41	66	작동
	2500~3000cc	52	82	작동
	3000~4000cc	77	127	작동
	4000~5000cc	92	200	작동
	5000cc 초과	102	220	작동
	클린에너지 기반 이동수단	3	10	기존 유지 (3%)
주류	23% 초과	80	110	작동
	23% 미만	70	90	작동
	10% 미만	62	72	작동
맥주	5% 초과	60	70	작동
	0.5~5%	60	60	작동
	0.5% 미만(자국 맥주 생산 고려 유지)	20	20	작동
담배	시가 및 담배류	57	72	72
	마른 잎을 활용한 담배류	42	47	47
음료	소프트드링크, 소다 등	7	12	기존 유지 (7%)
	에너지드링크	12	17	기존 유지 (12%)
	커피(자국 생산을 고려해서 유지)	7	7	기존 유지 (7%)
게임머신	사행성 게임기계, 상업용 게임기계	35	50	작동

자료: 라오스 재무부

■ 외화 부족에 따른 일부 수입 품목 수입 통제 강화

- 라오스 농임업부는 자국 외화 유출을 야기하는 대외 수입량을 줄이고자 농산물 및 일부 축수산물 수입 금지를 권고
 - 배추, 콜리플라워, 양파, 마늘, 토마토, 고추, 감자, 당근, 비트 등의 채소류 및 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금지 권고 품목으로 포함
 - * 프리미엄 고기, 레스토랑 등에서 활용되는 육류 제외
 - 수산물은 수입 가능하나 지역별 쿼터를 고려해 통제할 것 제시

▣ 라오스 ESG 관련, 정책·규제 미비하나 중요성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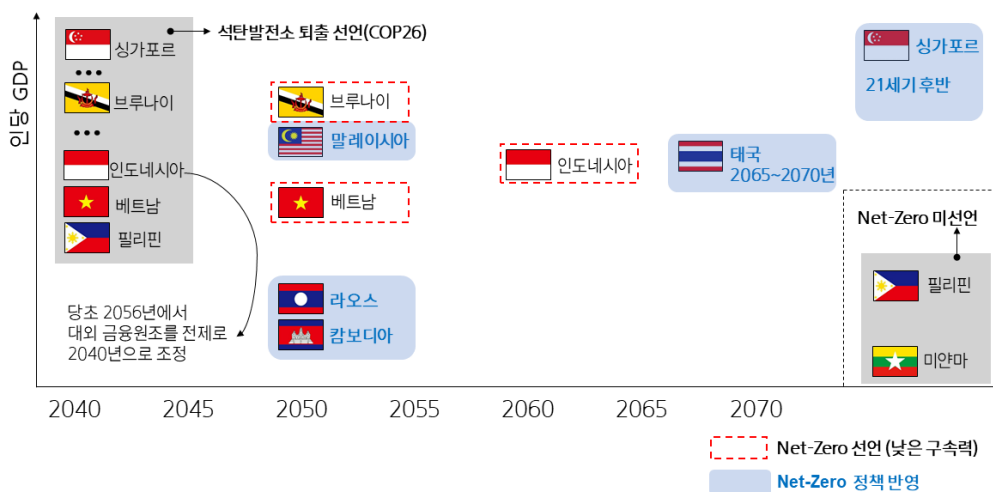
- 범세계적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환경 분야(E) 관련 정책·법령 발표
 - 온실가스 저감 15%, 국토의 70% 산림화, 에너지 소비 10%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등 47.6억 달러 투자를 계획 중
 - * 자체 정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대외 편당에 의존 중
 - 정부는 유류 수입 수요를 줄이고 친환경을 지향키 위해 자동차 전장화를 2025년까지 1%, 2030년까지 30% 확대(공공사업교통부 발표)

☞ 민간기업 투자 사례

- 현대/기아자동차 조립생산 및 자체 브랜드(대한 등) 자동차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코라오그룹은 2023년 3월 쿡콕메가마트 개설과 함께 리테일 분야 진출
- 기존 자동차 제조 역량과 전국 유통망, 소매유통업을 기반으로 3륜 전기자동차 기반의 딜리버리 서비스 착수

-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충전소 설치사업도 증가 추세
 - * 라오스 내 전기차 충전소는 20개 수준으로 2025년까지 100개 설치 목표
- 한편, 라오스는 2050년 넷제로를 발표했으며, 환경보호법(2012.12월), 기후변화 시행령(2019.9월 수립, 2020년 공포) 수립
- 그 외 국가 기후변화 전략(2022.4월), 국가 REDD+ 전략(2021.4월), 비엔티안 특별시 그린산업정책(2022년) 등 국가 전략체계를 마련
 - * 2023년 10월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구축을 위한 시행령을 준비 중(오스트레일리아 정부 자금 지원을 통해 글로벌녹색성장기구에서 지원 중)

〈동남아시아 국별 넷제로 목표〉



〈2차 NDC 분야별 세부과제〉

연번	세부과제
1	토지의 70% 산림화
2	태양열/풍력발전(1GW) 및 바이오매스 확산(300MW)
3	자동차 전장화(전체 차량의 30%)
4	교통 에너지의 10%를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
5	에너지 소비 10% 절감
6	쌀 재배를 위한 5만 헥타르 토지 수도 공급 효율화
7	지속성장 가능한 쓰레기 처리(일일 500톤)

자료: 라오스 2차 NDC 발표자료

〈2030년 국가녹색성장전략〉

목표	(경제 분야)		(사회 분야)		(환경 분야)	
	- 경제성장 - 취업률/소득 증대 - 글로벌 경기 영향 최소화		- 포용력, 평등 - 지역 격차 해소 - 사회적 약자 평등 추구		- 효과/효율적 자원 활용 - 환경오염 감소 - 재해 취약성 최소화	
과제	(재정)	(금융)	(교육)	(노동/사회복지)	(보건)	
	- 환경세 도입 - 에너지·자원의 경제적 활용 재정정책 - 사회·환경 친화적 제품 생산, 소비자에 대한 보조정책 - 친환경 제품, 사업장에 대한 공공조달 우선	- 고효율·친환경 생산설비 수입 시 저리 대출 - 녹색성장 분야 중소/중견기업 저리 대출 - 소액 대출 기관 도입 활성화	- 초중등 교육 커리큘럼에 녹색성장 도입 - 녹색성장·지속가능 개발 분야 산학 연계 과정 개발 - 녹색성장 관련 과학·정책 연구 증진	- 녹색성장 분야 단기 직업훈련 과정 개발 - 구인구직 정보센터 설립 - 사회보장제도 효율화 및 범위 확대 - 재해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체계 효율화	- 기아·영양부족 최소화 - 깨끗한 물 보급 및 위생 개선 - 산모/산아 사망률 감소 - 헬스케어 서비스 접근성 개선	

자료: 라오스 국가녹색성장전략

- 현행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 간 G2G 탄소배출권 거래는 Joint Crediting Mechanism을 기반으로 일본과 시행 중*

* 총 7건의 프로젝트를 승인(태양광 4건, REDD+ 1건, 데이터센터 1건, 에너지절감 1건)

- 사회적(S) 기여 분야는 라오스에 대한 유무상 ODA 프로그램* 중심으로 코이카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을 통해 저개발국 자립을 지원

* 2023년 한국 정부의 對라오스 ODA 확정 규모는 1,178.1억 원

※ 라오스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유상보다는 무상 ODA 중심으로 지원 중

** K-패션 직업훈련 및 브랜드 개발 등

- 거버넌스(G) 분야는 아직까지 ESG 공시 의무가 없으며, 특기할 만한 이슈는 없음

- ※ 제조업이 미약하여 대다수의 생필품 및 소비재 등을 수입에 의존
- ※ 지리·문화적 인접국가인 태국과의 교역량이 제일 많으며, 그 외 중국·베트남의 시장점유율이 높음
- ※ 라오스 내 투자는 광산 개발(37%), 전력 발전(31%)에 집중되어 있음

가. 시장 특성

▣ 주변국에 의존적인 시장구조

- 2023년 기준 라오스 수입액의 87%는 주변국인 태국, 중국, 베트남이 차지
 - 국가별 상위 3위 수입점유율은 태국(52%), 중국(28%), 베트남(7%)
- 태국은 라오스와 언어가 70% 유사하고 경제교류가 활발해 오랫동안 금융·유통 등 많은 경제 분야에서 라오스 시장을 지배적으로 점유하고 있음

▣ 주요 시장 이슈

- 라오스 통계청에 따르면 라오스 인구는 2022년 기준 744만 명이나 국토는 한반도의 1.1배로 인구밀집도*가 낮으며, 수도인 비엔티안특별시 인구가 99만 명에 불과해 규모의 경제 실현에 한계 존재
 - * 한국 인구밀도는 514.6명/km²인 반면 라오스 인구밀도는 31.4명/km²
- 주요 국제기구(World Bank, IMF, ADB) 및 신용평가기관들은(Moody's, Fitch Ratings) 라오스 공공부채 문제를 우려하며, 투명성 및 기업환경 개선을 조언

〈주요 시장 특성 및 가치〉

요소	주요 영향
인구	744만 명의 인구 중 58.6%가 30세 미만 - 평균 임금은 월 457만 킵(약 223달러)
경제	- 현저화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심화, 높은 공공부채(IMF 발표, 2023년 전망치 GDP의 123%) 등으로 인해 라오스 정부의 부채 상황 부담 가중 -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작년('22.5월)에 이은 2차 유류 부족 사태 발발 우려 목소리 제기
산업	- 현재의 라오스 산업구조는 의류, 광산 개발, 전력 발전 등 소수 분야에 국한 - 식품가공, 관광, 농업 분야 등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장려
외부 경제	-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라오스 정부의 대외부채 상황 부담 가중, 중국발 투자 감소 - ASEAN 역내 연결 및 통합 - 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디지털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디지털 사회, 스마트시티, 하이테크 부문의 발전 - 높은 모바일 보급률(85%)

자료: 라오스 통계청

나. 교역

▣ 라오스 대외교역 동향

- 2017~2022년 라오스 교역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전 세계 무역수지 흑자 전환 이후 2022년까지 흑자 유지
 - 2022년 무역수지는 글로벌 유가 급등 및 라오스 깎파 약세로 전년 대비 감소
- 수출은 광물·전력에 편중되어(64%) 라오스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
 - 2022년 수출대금 중 라오스로 유입된 외화는 30%에 불과(라오스 중앙은행)
- 유류/전기·전자제품 수입이 많으며, 2022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각각 86.2%, 863.2% 증가
 - 자동차 구매량에 비해 석유가 생산되지 않아 유류 수입이 많은 편

〈5년간 라오스 무역 거래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54.1	58.6	61.7	76.3	81.7
수입	58.5	57.4	50.6	58.9	67.9
무역수지	-4.4	1.2	11.0	17.4	13.8
교역	112.6	116.0	112.3	135.1	149.6

자료: 라오스 산업통상부

-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 중국, 베트남과 꾸준히 상위 3대 수출대상국 유지
 - 문화적 근접성, 물류 용이성 등의 이점으로 인접국 태국과의 교역 압도적
 - 그 외 싱가포르, 일본, 미국, 한국과의 수출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수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최근 5년 라오스 상위 10대 수출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순위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국별 비중
태국	1	2,537.5	2,407.0	2,745.1	2,783.7	3,006.4	8	36.8
중국	2	1,406.0	1,709.4	1,467.4	2,220.6	2,237.2	0.7	27.4
베트남	3	885.3	1,054.9	1,041.1	1,237.1	1,314.4	6.2	16.1
호주	4	1.5	6.9	88.7	348.5	395.1	13.4	4.8
싱가포르	5	17.3	14.7	42.1	91.0	152.8	68	1.9
캄보디아	6	7.4	19.9	114.8	159.6	147.1	-7.8	1.8
일본	7	86.4	93.6	84.7	82.9	131.8	59.1	1.6
미국	8	26.9	29.5	31.5	66.9	111.5	66.6	1.4
인도	9	128.8	104.3	109.0	75.1	102.1	36	1.2
독일	10	74.7	81.8	76.3	77.7	101.0	30.1	1.2
한국	11	4.5	5.2	11.2	11.2	21.2	89.1	0.3
전체 수출액		5,410	5,864	6,168	7,627	8,173	7.2	100%

주: 순위, 국별 비중, 증감률은 2022년 기준
 자료: 라오스 산업통상부

- 라오스 상위 3대 수입대상국은 태국, 중국, 베트남으로 각각 국별 점유율 49.5%, 24.3%, 6.2%를 차지
 - 한편, 포스트 코로나 이후 백신을 비롯한 치료제 수요가 증가하여 의약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미국, 스위스와의 수입 규모 급증

〈최근 5년 라오스 상위 10대 수입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순위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국별 비중
태국	1	3,279.5	3,108.9	2,817.9	2,996.3	3,359.6	12.1	49.5
중국	2	1,381.5	1,512.0	1,128.1	1,254.6	1,645.4	31.1	24.2
베트남	3	693.6	650.7	555.4	500.6	422.1	-15.7	6.2
미국	4	16.9	41.4	86.9	250.2	310.9	24.3	4.6
스위스	5	1.9	1.5	1.0	227.5	281.7	23.8	4.1
일본	6	119.6	88.1	136.1	148.4	147.7	-0.4	2.2
싱가포르	7	28.2	19.8	23.1	52.0	78.9	51.6	1.2
한국	8	65.1	58.9	48.1	47.8	64.5	34.9	1.0
호주	9	31.0	15.8	23.8	64.0	61.1	-4.6	0.9
말레이시아	10	13.0	18.4	17.7	20.1	57.1	184.1	0.8
전체 수입액		5,848	5,741	5,064	5,887	6,789	15.3	100

주: 순위, 국별 비중, 증감률은 2022년 기준
자료: 라오스 산업통상부

■ 비관세장벽 애로 현황

- 반덤핑 등 규제는 미시행 중이며, 행정 애로 외 비관세장벽 또한 별도 없음
- 일부 세관에서 무상 샘플의 통관을 계류하고 관세를 요구하는 등 자의적 애로사항 발생
 - 라오스의 세수 부족 및 인사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라오스 자원 공급망 동향

- 라오스는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여 현행 519개소의 광물자원 산출지 분포
 - 총 28종을 채광 증으로 금, 은, 구리 등의 금속 광물과 갈탄, 인산염 등 비금속 광물자원 분포
 - 희귀금속은 라오스 동북부 시엥쿠양주, 후아판주 내 개발권을 양허해 탐사 및 채굴 중
- 라오스 내 한상기업(Lao Scrap Metal사)이 메탈 스크랩을 수집해 한국 수요처에 공급 중(그 외 한국 기업의 활동 미미)

- 라오스 쏘싸이 시판돈 총리는 월례 내각회의에서 경제 재건의 핵심 자원으로 광물 개발·관리를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을 지시
 - 휴대폰, 하드디스크, 기차 제조뿐만 아니라 녹색기술(풍력 터빈, 전기차 등)에도 사용 되는 17개 희토류 관리 강화
 - 귀금속 및 광물자원에 대한 관리 및 광산 운영에 대한 엄격한 감독 확립

다. 투자

▣ 라오스 외국인 투자 진출 동향

- 라오스는 2000년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경제특구를 지원 중
 - 2023년 현재 라오스 정부가 승인한 경제특구는 12개소이며, 2023.5월까지 총 1,164개사가 입주
- 1989년부터 2022년까지의 라오스 투자 총액은 446.6억 달러로, 이 중 라오스 대내 투자액은 247.3억 달러, 순대외투자액은 114.8억 달러, 합작투자액은 84.5억 달러
- 무분별한 프로젝트 발굴 및 낮은 수행 의지로 프로젝트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프로젝트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
 - 라오스 투자 유치, ODA 및 Concession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기획투자부는 광물자원 개발 등 해외 기업들의 관심은 높지만 실질적으로 프로젝트화가 어려운 프로젝트에 대한 선별 강화
- 라오스 투자 상위 3개국은 중국, 태국, 베트남으로 라오스 간 교역 상위 3개국과 일치
 - 지리적 인접성, 비슷한 정치체제 혹은 문화 등으로 투자 진출 활발

〈라오스 투자 상위 20개국 (2022년)〉

연번	투자국	프로젝트 수	투자 총액 (백만 달러)
1	라오스	2,933	15,958.0
2	중국	941	13,762.7
3	태국	765	5,518.8
4	베트남	424	4,234.7
5	한국	318	761.4
6	프랑스	227	558.4
7	미국	120	149.4
8	일본	108	149.1
9	말레이시아	103	778.8
10	호주	90	194.7
11	싱가포르	85	367.6
12	대만	76	120.5
13	영국	55	167.0
14	홍콩	52	644.5
15	캐나다	43	69.2
16	독일	31	7.8
17	러시아	25	39.5
18	인도	22	23.9
19	네덜란드	15	399.4
20	스위스	15	44.5

자료: 라오스 기획투자부

- 라오스 투자는 광산 분야(37%) 및 에너지 분야(31%)에 집중되어 있음
 - 전력 발전에는 외국인 투자가 2022년 3월까지 95억 달러가 유입되었으며, 이는 외국 투자액의 34%를 차지해 외국인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분야로 나타남
 - 라오스 정부는 2030년까지 20,691MW의 발전 용량과 연간 99,470GWh의 전력 생산을 위해 183개의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임

〈부문별·투자주체별 투자 현황 (2022년 3월)〉

연번	부문별	사업 수	라오스 측 투자		외국 투자	총액 (천 달러)
			민간	정부		
1	광산	414	12,509,968.3	62,144.0	6,839,589.2	19,411,701.4
2	전력발전	60	4,689,421.1	2,048,155.1	9,508,924.7	16,246,501.0
3	서비스	761	1,455,723.5	863,547.6	4,022,308.5	6,341,579.6
4	농업	994	329,816.6	17,483.4	2,795,604.3	3,142,904.4
5	제조/수공업	938	718,595.3	76,838.7	1,451,960.5	2,247,394.5
6	건설	153	761,908.2	21,640.0	632,935.3	1,416,483.5
7	관광/요식업	429	275,367.2	94,595.5	670,050.4	1,040,013.1
8	공중보건	27	782,434.8	-	73,230.6	855,665.4
9	통신	19	112,030.5	129,062.4	444,416.0	685,508.9
10	은행	34	89,796.5	92,461.1	477,522.4	659,780.1
11	목재가공	210	108,328.0	3,053.9	298,659.5	410,041.4
12	무역	353	119,452.9	412.9	206,155.3	326,021.1
13	봉제	110	9,159.7	49.8	85,790.9	95,000.4
14	컨설팅	221	25,595.1	-	68,797.1	94,392.2
15	교육	109	21,918.4	500.0	23,139.8	45,558.1
합계		4,832	22,009,516.0	3,409,944.4	27,599,084.8	53,018,545.2

자료: 라오스 기획투자부

■ 한국의 對라오스 투자 현황

- 2022년 누적 투자 건수 기준 한국은 라오스의 제5대 투자국으로, 전력 발전(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외에 금융업(자동차 리싱, 마이크로파이낸싱 등), 봉제업(생산공장 이전) 투자 진출이 활발함
- 인도차이나반도 국가와는 달리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편
 - 2022년 라오스 인구는 744만 명으로 내수시장이 작을 뿐만 아니라 인접국 대비 인건비가 낮지만 노동인력 수준이 낮아 숙련된 노동인력 확충이 애로로 작용

라. 건설 플랜트 분야 유망 프로젝트

▣ 유망 프로젝트

〈착공 예정인 대규모 건설 플랜트 유망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발주처	재원	분야	규모 (백만 달러)
Floating Solar Power 1200 MW	PHOUSY GROUP	JV, 해외 투자	건설 플랜트 (태양광)	1200
Potential Study on Waste to Energy and Piloting the Transportation of Waste by EV in 6 Provinces	Khouanemeung Group Sole Co.,Ltd	From owner, JV	건설 플랜트	100
Xelanong 3 Hydro Power 60 MW	Simeung Group	JV	건설 플랜트 (수력)	158

자료: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체 조사

가. 교역

▣ 양국 교역 현황

- 對라오스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나, 무역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2023년 9월 기준 한국 對라오스 수출은 7,100만 달러(32.9%↑), 수입은 7,500만 달러(8.0%↑)
 - 무역적자는 400만 달러로(2022년 2,100만 달러) 수출 증가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연내 무역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 코콕메가마트 수입물량 지속 증가, 봉제업종 투자 진출에 따른 부자재 수출, ODA 프로젝트 연계 기자재 수출 등

〈한-라 무역 통계〉

(단위: 백만 달러, ()는 증감률)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9
수 출	170 (9.2)	126 (-25.8)	92 (-27.1)	84 (-8.9)	75 (-10.7)	50 (-34.0)	71 (41.6)	64 (-8.8)	71 (32.9)
수 입	28 (57.6)	23 (-20.0)	27 (20.2)	30 (10.2)	39 (29.9)	44 (12.1)	49 (11.1)	85 (74.9)	75 (8.0)
무역수지	142	103	65	54	36	6	22	-21	-4
총교역액	198	149	119	114	114	96	120	150	147

주: '23년 9월 기준 라오스는 우리의 수출 110위, 수입 95위, 교역 113위 파트너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라오스 수출 동향

- 라오스의 對한국 수출은 2,118만 달러에 불과하나 교역 규모 증가 추세
 - 한국은 라오스 전체 수출 비중의 0.3%에 불과하나,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수출 규모 89.1% 증가
 - 주요 품목은 목재류, 농약의약품, 계측제어분석기, 유선통신기기, 신변잡화 등
- 라오스의 1순위 수출 품목인 목재류 수출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코로나 장기화로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성형목탄 수요 크게 증가

〈최근 3년 한국의 對라오스 수출 품목〉

(단위: 천 달러, %)

MTI 코드	품목명	2020		2021		20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31	목재류	21,774	30.3	25,231	15.9	35,120	39.2
226	농약의약품	78	-99.7	-	7.7	28,188	-
815	계측제어분석기	5,852	5.8	7,090	21.1	9,312	31.3
811	유선통신기기	4,366	31.6	4,114	-5.8	2,686	-34.7
521	신변잡화	2,085	68	2,287	9.7	2,444	6.9
621	알루미늄	1,022	-10.5	992	-3	1,492	50.5
441	의류	725	-12.6	1,759	142.7	1,338	-23.9
515	문구 및 완구	409	13,761.90	561	37.2	1,329	136.9
116	아연광	-	-	0	-	763	-
15	기호식품	1,361	-44	1,695	24.5	694	-59.1
812	무선통신기기	74	2,485.50	256	246.5	484	88.8
625	연제품	-	-	647	-	400	-38.2
111	금은 및 백금	-	-	7	-	236	3,137.90
12	산식물	26	-91.8	57	115.9	220	284.5
822	음향기기	324	197.4	199	-38.5	219	9.8
518	패션잡화	1	45.2	15	1,027.30	86	455.9
16	농산가공품	-	-86.7	49	53,175.00	48	-2
227	비누·치약 및 화장품	47	-80.5	33	-30	42	26.3
512	가구	4	-67.3	15	272.3	41	178.1
449	기타섬유제품	17	-50.7	4	-74.2	17	281.7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라오스 수입 동향

- 자동차는 라오스의 주요 對한 수입 품목으로 KOLAO그룹이 현대/기아차 독점 딜러십을 통해 신차 수입
 - 한편, 전년 대비 2022년 건설광산기계의 수출금액이 크게 증가했는데, 현재 120개 프로젝트에서 광물을 생산 중이며, 308건의 신규 광산 개발 승인을 검토하고 있어 해당 품목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의류 품목의 수출 증가 추세로 한국의 중저가 의류 브랜드 진출 기회 포착 필요
 - 브랜드 의류 구입이 용이하지 않은 라오스에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의류 소매점 지속적 증가 예상
 - Big C 마켓 및 코라오그룹의 대형 쇼핑몰 개설 계획에 따라 의류 브랜드 수요 존재

〈최근 3년 한국의 對라오스 수입 품목〉

(단위: 천 달러, %)

MTI 코드	품목명	2020		2021		20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741	자동차	8,546	-31.2	24,242	183.7	27,463	13.3
725	건설광산기계	1,798	-64	3,562	98.1	8,529	139.4
742	자동차부품	14,050	-37.1	4,173	-70.3	3,828	-8.3
16	농산가공품	1,579	98.2	2,125	34.6	2,668	25.6
227	비누·차약 및 화장품	4,022	144.3	7,135	77.4	2,021	-71.7
226	농약 및 의약품	915	-69	1,885	105.9	1,980	5
320	고무제품	1,062	-51.2	1,077	1.5	1,353	25.6
441	의류	363	45.8	25	-93.2	1,248	4,945.30
434	인조장 섬유직물	544	89.8	711	30.5	1,240	74.5
15	기호식품	550	-23.7	891	61.9	1,105	24
811	유선통신기기	95	1,505.50	291	207	1,040	258
835	건전지·축전지	1,886	1.1	1,789	-5.1	1,018	-43.1
133	석유제품	1,051	-29.8	1,367	30.1	1,016	-25.7
814	전자응용기기	673	166.7	1,409	109.4	762	-45.9
825	난방 및 전열기기	689	57.1	708	2.8	724	2.3
617	주단조품	450	-27.4	534	18.9	693	29.7
214	합성수지	396	-40.6	381	-3.9	673	76.7
821	영상기기	527	-47.5	0.7	-99.9	645	97,881.90
714	사무기기	498	-	-	-100	554	-
841	전력용기기	296	-67.6	223	-24.7	470	111

자료: 한국무역협회

■ 무역협정 체결 현황

- 한-ASEAN FTA 체결로 전체 품목의 84.4% 관세 단계적 철폐 중
 - 2021년 한국 기업의 한-ASEAN FTA 전체 활용률은 FTA 중 3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52%)
- 라오스는 2022.2월부터 한국과 RCEP 협정이 발효됨
 - 한-ASEAN FTA로(8,073개 품목 관세 기 철폐) 관세 추가 철폐 품목은 868개에 불과
 - 단,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중장비 등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되어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對라오스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

■ 내수기업 수출 성공 사례

- 수산가공품 생산기업 A사는 인콰이어리 수요 기반 바이어 매칭을 통해 한국 최초 라오스에 냉동 수산물을 성공적으로 수출
 - 바이어 간 지속적인 인콰이어리 수요 접수를 통해 진출 기회 포착
 - 패키징, 리플렛 제작 등 국내 기업의 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성약 속도 가속화

■ 수출 실패 사례

- 가공식품 생산기업 B사는 물류비에 따른 제품 판매가격 상승으로 수출 애로
 - 올해 3월 방콕에서 열린 한국상품우수전에 참가하여 만난 바이어와 수출상담, 5월 라오스에서 MOU 체결 진행
 - 상품 특성상 냉장 컨테이너를 이용해야 하나 물류비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수출 애로 발생

나. 투자 진출

■ 투자환경 분석

- 한국의 對라오스 투자는 1992년 법인 설립, 1994년 투자금 송금으로 시작
 -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기준, 2023년 6월 말 누적 기준으로 투자 건수 533건, 170개 현지법인, 6.8억 달러 규모 투자 진출이 이루어짐
 - 초기에는 요식업, 농업 투자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10년간 에너지, 건설, 금융 서비스, 자동차 제조,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최근 5개년 한국의 對라오스 투자 실적〉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월
투자건수	30	24	30	18	29	37	13
신고금액 (천 달러)	58,103	37,323	69,373	1,868	38,765	73,656	12,471
현지법인수	6	3	9	3	4	10	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투자 진출기업 성공 사례

- 봉제업종 중견 A사는 베트남에 제조공장이 있으나 라오스에 생산공장을 추가 설립하여 미국에 완성품을 성공적으로 수출
 - 베트남 정부의 노동 허가 및 소방시설 승인 등과 관련한 규제 강화, 높은 인건비 등으로 라오스를 새로운 생산기지로 선택
 - 한국에서 원재료 수입 후 미국에 재수출하는 구조로 무관세 수입 혜택 이용

다. 협력 유망 분야

-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한-라오스 국가협력전략 및 라오스 제9차 국가사회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출 가능

〈라오스의 개발 중점 분야별 세부 협력 수요〉

분야	중점사항
헬스케어	- 의약품 생산, 수도 병원 현대화 및 지방 병원 기초 보건 역량 강화 - 헬스케어 분야 종사자 수준 향상
디지털 경제	-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을 위한 민간 부문 주도의 경제성장, E-커머스 산업 활성화
디지털 거버넌스	- 전자민원 서비스, 재난관리 시스템, 정보공개 등 전자정부 체계 구축 - 데이터 유출 보호 및 사이버 보안 - 우편 서비스의 디지털화
농업	-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 및 촉진 -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 등 친환경 농업 장려 - 중국 등으로의 농축산물 수출 - 가축사양센터, 바이오비료 생산시설, 종자연구센터, 현대화된 농업단지 개발 등 농축산물 수출 기반 마련
관광	- 관광 인프라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
에너지	- 폐기물 에너지화 및 태양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생산 활성화
인프라	- 스마트시티, 내륙항, 라오스-중국 고속철도 역사 인근 물류시설 확충 - 방비엥-루앙프라방, 루앙프라방-루앙남타 간 고속도로 건설
산업	- 경제특구에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 BOT, PPP 등 민자사업 투자 장려 - 식음료 가공, 의류, 건설, 전기전자, 광물 처리 산업 육성 -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소비재 생산
직업훈련 및 교육	- 4차 산업혁명에 맞는 IT 분야, 고숙련 필요 분야 인력 양성



〈한국의 라오스 개발협력 대응 가능 분야〉

분야	협력 가능 사항
헬스케어	- 라오스 제조업 및 헬스케어 분야 육성 협력
디지털 경제	-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
디지털 거버넌스	- 전자정부 구축 사업
스마트농업	- 농업 관련 각종 첨단시설 및 장비 제공, 노하우 전수
관광	- 주요 도로·철도 개발 지역 관광 개발 특수, 문화재보존지역, 관광 인프라 개발
에너지	- 전력 송배전망 사업, 수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협력
인프라	- 스마트시티, 제방, 도로 등 각종 인프라 컨설팅·구축
산업	- 경제특구 및 개선 물류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제조설비 투자
인적자원 개발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교육기관, 인력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공유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G2B, B2B 등
 - (B2G) 태국 등 국경 인근 내륙항 연계 한국형 복합산업단지 개발
 - (B2B) 라오스 금융 현대화를 위한 진출 및 국제 기준 회계 시스템 도입

Chapter



진출전략



- ※ 대형 유통망 확장 기회 활용 한류로 익숙한 소비재 및 프랜차이즈 산업 진출 모색
- ※ 제조업 진출 대안지로 떠오르는 라오스, 경제특구 및 인력양성센터 적극 활용
- ※ 2024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에 따른 개발협력(ODA) 프로젝트 활성화 전망

1 PEST 분석

P 정치정책 (Political)	• 대외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세금 조정 논의 - 라오스 재무부는 대외 수입량이 높은 자동차, 주류, 담배, 음료수, 사행성 게임기 품목에 대해 내국 특별소비세를 상향할 것을 발표('23년 10월) - 부가가치세 역시 현재 7%에서 10%로 높이는 방안 논의 •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고용법 신설 움직임 -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바이캄 카티야(Baykham Khattiya)는 기존 노동법 내 담겨 있던 고용법에서 별도의 고용법을 신설할 것을 국회에 요청 -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라오스 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여 해외로 빠져나가는 노동인구의 자국 유입을 촉진하기 위함 - 노동사회복지부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사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나 향후 신설될 법안 지켜볼 필요
E 경제 (Economic)	• ADB가 발표한 2022년 경제성장률은 2.5%이며 2023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3.7%임 •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2023년 2월 13일 기준 1주 미만(Less than 1 Week) 7.5%이며, 1주 이상(More than 1 Week), 3개월 미만(Less than 3 Months), 2주~1년(2 Weeks~ 1 Year)에 대한 기준금리는 폐지함 • 중앙은행 환율 기준 연초 대비 환율이 미화 달러당 17,336깁(2023.1.3)에서 지속 상승 추세로 미화 달러당 20,455깁(2023.10.6)까지 상승(18.0%) • 라오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이 ('21) 3.7% → ('22) 23.0% → ('23.9월) 34.4%로 지속 상승
S 사회문화 (Social)	• 인구 744만 명 중 58.6%가 30세 미만으로 젊은층 비율이 높음 •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일반 가정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져 의료 및 교육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음 - 식자재에 대한 인플레이션율은 45.6% 상승('23년 1~8월 평균) - 특히 저소득 가구의 경우 2022년 약 7%의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둠 • 소비자물가 부담 가중으로 만깍숯(한국의 다이소), 간편조리식품 등 적당한 품질의 값싼 제품을 찾고 있음
T 기술 (Technological)	• ICT 시장은 개발 초기 단계이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 2030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정책에 힘입어 현재 라오스 전국 95% 지역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며, 81% 지역에서 모바일 인터넷 연결이 가능 - 향후 원격근무 시스템, 화상회의, 클라우드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전자정부를 만들 계획이며, 시내 곳곳에는 전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플랫폼, 앱, 보안 시스템 등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라오스 시장 SWOT 분석〉

강 점(Strength) • 디지털 경제시대 실현을 목표로 전자정부,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 수요 증가, ICT 기업의 SW 기술 수출 기회 • 리테일 사업 확장, 한류 열풍에 따른 K-소비재 시장 개척 기회	약 점(Weakness) • 높은 물류 운송비 • 언어·문화적 차이 • 태국 의존적 소비 트렌드
기 회(Opportunity) • 라-중 고속철도 완공으로 인한 물류 운송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 • 2024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에 경제 회복 기대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도입에 따른 관련 프로젝트 활성화 • 리테일 비즈니스 확장 추세에 따른 프랜차이즈 진출 및 유통망 입점 기회	위 험(Threat) •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대외부채 상환 부담 가중, 중국발 투자 감소 • 제조 노동력 유출 방지를 위한 최저임금 상승 • 높은 대외부채, 외환보유고 부족 • 환율 상승에 따른 유류·비료·원자재 등의 수입 부담 가중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주요 대형 유통망 위주 선입점 및 확장 전략 •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원부자재 수출 및 투자 진출	한류 활용 대형 유통망 대상 소비재 진출전략
ST 전략 (강점 활용)	• 디지털 경제시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프로젝트화 가능한 기술 수준 개발 및 보유	개발협력(ODA) 등 프로젝트 시장 공략
WO 전략 (기회 포착)	• 태국 인플루언서 활용 리테일 분야 온라인 마케팅 • 관광객을 겨냥한 유망 소비재 발굴	하이퍼마켓 대상 프랜차이즈 진출
WT 전략 (위험 대응)	• 불안정한 대외경제에 대응 가능한 사업전략 • 태국 대상 제품 시장성 테스트 선경험	포스트 베트남, 제조기업 진출전략 구상

2024년 진출전략

구분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한류 활용 대형 유통망 대상 소비자 진출전략	◦ K-건강기능식품(홍삼, 콜라겐 젤리 등), 농산가공품(김), 화장품(스킨케어) 분야 유망 품목 ◦ 2024년 라오스 방문의 해에 따라 관광객 타깃 시장 공략 ◦ 대형 유통망 활용 미니마트로까지 확장 개척
개발협력(ODA)등 프로젝트 시장 공략	◦ 공공 인프라(건설·전자시스템), 광물 개발사업 등에 적극 참여 ◦ ASEAN의 물류 요충지 실현을 위한 도로·철도 건설 분야 공략
하이퍼마켓 대상 프랜차이즈 진출	◦ 패션·요식업·레저 분야 집중 공략 ◦ 마스터프랜차이즈, JV 협력, 제조 협력 등의 진출 형태 고려
포스트 베트남, 제조기업 진출전략 구상	◦ 봉제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 진출 고려 ◦ ODA 인프라 활용 인력 구인

경제 회복의 해,
라오스 시장
적극 활용

라오스 산업별 유망 품목 타깃형 시장 공략

3-1. 한류 활용 대형 유통망 대상 소비재 진출전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ADB에 따르면 2024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4.0%로 점차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
* ('21년) 2.3% → ('22년) 2.5% → ('23년) 3.7% (예측치) → ('24년) 4.0%
-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 시장 발달에 따라 K-드라마, K-팝 등을 통해 한류 전파
* 태국 넷플릭스의 방송 프로그램 금주(9.25~10.1) TOP 10 순위에 한국 프로그램이 4개 차지
- 라-중 고속철도 개통, 국경 봉쇄 해제 등으로 관광객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리테일 비즈니스 확장 추세
* 2024년 목표 관광객 수는 460만 명이며, 외국인 관광객 수익 목표는 4억 달러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비엔티안특별시 내 세븐일레븐 1호점 개설 및 콕콕메가마트 지점 오픈
 - '23년 7월 세븐일레븐 1호점이 씨콕타봉구(Sikottabong)에 오픈 후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에 따라 싸이세타구(Saysettha)에 2호점 개점
 - '23년 3월 콕콕메카마트 오픈 이후 7개월 만에 콕콕미니마트 1호점을 시사따낙구(Sisattanak)에 개점 → 2025년까지 2,000개 미니마트 개점 목표
- 비엔티안시는 97만 명의 작은 소비시장이나 제품에 따라 충분히 구매력을 갖출 수 있으며 유통구조가 짧아 마진이 높은 편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한류로 라오스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K-소비재 집중 공략
 - 라오스 젊은층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 K-드라마, K-팝을 통해 접한 한류 문화 중 경험해봤거나 향후 경험하고 싶은 분야 1순위로 K-푸드를 꼽음
- 건강기능식품, 농산가공품, 주류 등 유망 품목 주목
 - 외모 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너뷰티' 트렌드 유인,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콜라겐,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이 인기
 - 농산가공품(MTI : 016) 중 특히 라면은 K-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던 음식으로 라오스 소비자에게 선호도가 높으며 매운맛을 좋아하는 라오스인에게 적합
 - 라오스는 다양한 연회 및 축제 행사가 많아 자연스레 음주문화가 발달했으며 코리안 바비큐 식당에서 접하는 '소맥'에 뜨거운 반응
 - * 세계보건기구(WHO)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라오스는 1인당 연간 평균 7리터의 주류를 섭취하는데 아세안 10개국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함

3-2. 개발협력(ODA) 등 프로젝트 시장 공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24년도 라오스의 아세안 의장국 지위 수임이 확정됐으며, 이로 인해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유무상 프로젝트 유입이 확대될 것이며, 과거 사례를 토대로 볼 때 한국의 對라오스 ODA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라오스 정부는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광물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PPP(민관 합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으로 관련 기회가 증가할 전망
 - 2022년 발표됐던 라오스 디지털 경제 전환 정책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

■ 라오스 ODA 시장 규모는 5.7억 달러(2021년 기준) 규모

- 2021년 이후 공공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유상 ODA 시장은 위축된 상황이나, 2024년 아세안 의장국 지위를 통한 신규 차관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음
 - 농경지 조성, 상하수 처리, 병원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구축, 인적 역량 강화 등이 유망
- 라오스 정부 재정 여력이 부족해 향후 민관 합동 프로젝트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유망한 분야는 정부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디지털 경제 구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공항 프로젝트*, 철도**, 도로 보수공사) 등
 - *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는 비엔티안 내 추가 국제공항 설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2024년 중 루앙 프라방 공항 확장 프로젝트 발주 예정
 - ** 라오스 정부는 총 8건의 철도 공사에 대한 F/S를 승인했으며, 특히 PTL홀딩스는 비엔티안-베트남 봉양항구 총 555km 구간에 대한 철도공사를 추진 중

■ 라오스 그린성장 분야도 유망

- 라오스는 국토의 약 70%가 산림지역으로 그린성장 관련 프로젝트 개발 기회 다대
 - 특히 라오스 NDC(2021년)에 따르면 조건부 목표 달성을 위해 47.6억 달러 투자가 필요하며, 향후 관련 자금 지원이 수반될 경우 프로젝트 확산 예상
 - 한국-라오스 간 기후변화 대응 기본협약 및 양국 부처 간 MOU 체결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관련 분야 프로젝트 진출 기회 증가
- 월드뱅크 기후변화 대응 담당자에 따르면 향후 레드플러스(REDD+), 소수력, 태양광, 매립가스 포집, 제조업 혁신 분야가 유망

3-3. 하이퍼마켓 대상 프랜차이즈 진출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비엔티안특별시 내 주요 유통업체 점포 수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
 - * 2019년 25개에서 2023년 9월 기준 149개로 증가하여 496%의 증가율을 기록
- 복합쇼핑몰에 걸맞는 패션, 실내놀이시설, 음식점, 미용 등 다양한 종류의 매장 유치 계획
- 동남아 주변국 프랜차이즈 진출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유망 품목 선별
 - * 본촌, 파리바게트, 굽네 등 요식업 프랜차이즈 비율이 높음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24년은 아세안 의장국 수임 시기이자 정부가 지정한 ‘라오스 관광의 해’로서 2024년 경제성장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감 상승
 - 코로나19 이전 2018년 관광객 수는 419만 명으로, 2024년 관광객 유치 목표 (460만 명)를 달성할 경우, 충분한 외화 획득으로 과거 6%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
- 태국 Big C, 코라오그룹 등 하이퍼마켓 신설 계획에 따라 프랜차이즈 진출 기회 증가
 - Big C는 라오스에 2024년까지 ITECC 쇼핑몰 근처에 2층 높이, 8,500㎡ 규모의 하이퍼마켓 1곳을 건설할 계획
 - 코라오그룹은 2025년까지 동독(DongDok), 빠뚜싸이(Patuxay), 돈찬(Donchan) 지역에 대형 메가몰 오픈 계획
 - 독점적 지위를 형성한 브랜드가 많지 않아 타 국가에 비해 신규 진입이 용이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K-프랜차이즈를 고려 시 태국,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성공한 한국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경향이 있음
- 타 국가로의 진출 경험이 없더라도 패션, 요식업, 레저 분야는 블루오션으로 시장 선점
 - K-드라마를 통해 접한 한국 스타일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SPA 브랜드 진출이 거의 전무
 - * 스페인 의류 브랜드 MANGO 외 유니클로, 자라, H&M 등이 미진출한 상태

- K-치킨, K-분식 등 소비자 평가가 좋은 한식 메뉴가 많으나 특정 메뉴에 대한 전문 음식점이 많지 않아 한식당 간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태
 - * 비엔티안시 내 전문 치킨점은 3곳이며, 전문 분식점은 없음
- 도시 중산층의 가구 소득 증가로 골프연습장, 키즈카페 등 실내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대다수가 태국 국경 인근도시(우돈타니, 농카이 등)에서 이용 중

3-4. 포스트 베트남, 제조기업 진출전략 구상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베트남 내 제조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진출기업이 철수 혹은 이전을 고려하는 추세
 - * 젊은 세대의 제조업 기피 현상에 따른 인력 공동화 현상 및 공산당 리스크(일방적 제도 변경) 등이 애로사항으로 지적
- 라오스 제조공장 수는 9,321개 사에 불과하나 음료 제조 및 식품가공업체 비중이 높아 노동집약적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높음
 - * 음료 제조공장 12.0%, 식품 가공업체 11.6%
- 라오스 정부는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평가'에서 두 자리 순위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업 등록에 있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 추진 중
 - * 현재 라오스는 190개국 중 154위를 차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라오스, 제조업 투자 대안지역으로 진출기업의 관심 증가
 - 중국·베트남의 인건비 상승, 캄보디아의 강성 노조, 미얀마의 정세 불안 등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 진출 대안지로 라오스를 주목
 - 낮은 인건비, 값싸고 풍부한 전력, 적은 공휴일 수, 젊은 인구구조 등이 강점
 - 물류 허브의 중심지로 부상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물류비 절감 효과 기대
 - * 태국-라오스-중국을 잇는 남북화랑과 미얀마-태국-라오스-베트남을 잇는 동서화랑 철도망 연결이 진행 중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봉제·식품가공 등 노동집약적 제조시설 확장 추세
 - 산업별 기업 등록 통계상 제조업 1개 사당 투자 자본금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제조업 성장에 긍정적 시그널 포착
 - * 라오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개 사당 투자자본금액이 2021년 미화 9.9만 달러에서 2022년 미화 37.8만 달러로 3.8배 증가
- 금전적 혜택 및 행정 처리 효율성이 높은 경제특구 적극 활용
 - 경제특구 입주 기업은 원자재 수입 관세 면제, 수익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비자 발급 편의 등의 혜택이 주어짐
 - 또한 각 SEZ마다 설치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각종 인허가 및 세금 처리 등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편의성이 높음
 - * 2023년 현재 라오스 정부가 승인한 경제특구는 12개소이며, '23.5월까지 총 1,164개 사가 입주

- ODA 인프라 활용 인력 확보
 - 직업훈련원과 패션지원센터*는 코이카 ODA사업 일환으로 설립된 인력 양성 기관으로 숙련 노동자가 부족한 라오스에서 전문인력 발굴 가능
 - * 봉제 및 뷰티 교육장으로 구성, 1기 교육생(봉제 17명, 뷰티 9명) 졸업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스킨케어	선정사유
	- 한류 매체를 통한 한국의 '물광피부' 인지도 높음 - 포스트 코로나 시기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시장동향
	- 스킨케어 시장 규모는 연평균 15% 성장 중 - 업계에서는 코로나19에도 매출액 3배 증가
경쟁동향	
일본, 태국	
진출방안	- 샘플 공급을 통한 현지 소비자 레퍼런스 필요 -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태국 방송 및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태국 내 인지도가 있는 제품 선호 - 한국 제품 인증서, 마케팅 판촉물 등 제공 시 효과
품목명 2	
데일리케어	선정사유
	- 글로벌 SNS를 통한 한국 제품 접근성과 관심 증가 - 한국 제품의 기능적 장점에 대한 인지 증가
	시장동향
	- 유통 체인 규모 성장에 따른 제품 차별화 요구 - 기 진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증 및 선호 존재
경쟁동향	
태국, 중국	
진출방안	- 향, 기능에서 차별점을 가진 제품으로 경쟁력 확보 - 남성 전용 제품에 대한 틈새시장 공략
품목명 3	
뷰티 건강 보조제	선정사유
	- 태국 매체를 통한 '이너뷰티' 트렌드 유입 - 외모 관리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보조제 불티
	시장동향
	- 콜라겐, 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제품 인기
경쟁동향	
태국, 일본	
진출방안	- OEM보다는 기존 생산품 위주로 시장 타진 - 바이어에 대한 지원 지속으로 수입량 점진 확대 필요
품목명 4	
기능성 음료	선정사유
	-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건강한 제품' 인식 확대 - 삼키는 알약보다 마시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 확산
	시장동향
	- 2026년까지 시장 규모 연평균 9.5% 상승 기대 - 일률적인 제품으로 디자인 및 품질 차별화 요구
경쟁동향	
태국, 중국	
진출방안	- 맛, 패키징 등 차별이 있는 제품 소개 필요 - 온라인 등 제품 홍보를 위한 바이어 협력은 필수

품목명 5		
간편조식식품	선정사유	- 한류 매체를 통해 K-푸드 인지도 높음 - 저렴하고 섭취가 간편한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시장동향	- 2028년까지 시장 규모 연평균 6.32% 성장 기대
	경쟁동향	태국, 독일, 중국
	진출방안	- 맛, 가격, 편리성에서 경쟁력 확보 필요 - 인플루언서 마케팅, 한국 브랜드 콜라보 등의 전략 필요
품목명 6		
디지털 도어락	선정사유	- 보안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스마트홈 구현 기술 발달 - 도시화에 따른 현대식 아파트 신축으로 수요 증가
	시장동향	- 2027년까지 시장 규모 연평균 16.01% 성장 기대 - 현대식 주거 및 상업시설 건설 프로젝트 증가
	경쟁동향	태국, 중국, 베트남
	진출방안	- 가격, 디자인, 품질, 적용 기술 등에서 우위 확보 필요 - 잦은 정전으로 인한 보안상 한계점 해결책 마련
품목명 7		
자동차부품	선정사유	- 인구 대비 자동차 시장 규모가 큰 국가적 특징 - 시장 규모 대비 적은 생산공장으로 부품 수요 존재
	시장동향	- 품질이 중요한 부품 경우 한국산에 대한 수요 지속 - 라오스-중국 철도 개통으로 인한 수요 증가 전망
	경쟁동향	태국, 중국
	진출방안	- 전기자동차 관련 틈새시장 공략 - 중국산 저가 부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품목명 8		
농기계	선정사유	- World Bank, ADB 등 농업개발 국제협력사업 활발 - 농가 감소 및 농산물 수요 증가로 생산성 향상 이슈
	시장동향	- 라오스 내 연평균 폭발적인 시장성장률 기록 중 - 국제원조자금으로 인한 농기계 조달 건 지속 추진
	경쟁동향	태국, 중국, 일본
	진출방안	- 초기에는 ODA 사업을 통한 조달사업 수주에 주력 - 이후 대리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유통 확대
품목명 9		
비료	선정사유	- 대규모 비료 공장이 없어, 농장에서 퇴비를 직접 만들거나 화학비료를 수입
	시장동향	- 농업 생산량 증가로 비료의 수요 증가 -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 요구
	경쟁동향	태국, 베트남, 중국
	진출방안	- 보수적인 End-user 성향을 고려한 샘플 테스트 마케팅 - 수입 허가 관련 유통사와의 원활한 정보 공유 필요

품목명 10	
캠핑용품	선정사유 -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캠핑시장 성장 전망 - 라오스 정부의 생태관광 캠페인 집중 프로모션
	시장동향 - 캠핑 전용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등장과 시장 형성 - 20~40대 직장인 중심으로 캠핑 즐기는 트렌드 등장
	경쟁동향 중국, 태국, 베트남
	진출방안 - 생태관광과 캠핑용품시장의 연결고리 조사 필요 - 전기차와 접목 가능한 제품 공략해 점유율 확보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디지털 서비스	선정사유	- 라오스에는 디지털 서비스가 극히 제한적임
	시장동향	- 디지털 서비스가 점차 인기를 끌고 있으나, 현재 시장에는 일부 분야 관련 서비스만 존재 (음식 배달 앱 Foodpanda, Chompa Delivery 및 택시 서비스 Loca 등)
	경쟁동향	- 일부 IT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를 제외하면 경쟁사가 거의 없음
	진출방안	- SNS 홍보 및 가격 할인 이벤트로 대중 인지도 확보 - 소비자 보호규정, 보상제도 등 서비스 차별화
품목명 2		
보험	선정사유	- 지속적이고 꾸준한 경제 성장 및 가구 수입 증가로 인해 국민들의 미래 재정 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
	시장동향	- 최근 건강보험, 주택보험, 차량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동남아시아 신흥국 생명보험시장 연간 성장률은 2022년까지 10~16% 정도로 추산, 비생명보험은 7~11%의 성장 예측 - 교육이나 장례 등 생활 관련 보험은 아직 생소함
	경쟁동향	- 유럽계, 태국계, 베트남계, 일본계 기업이 라오스 시장에 진출 (Allianz General Laos Bangkok Insurance, Lane Xang Assurance, Lao-Viet Insurance, Prudential Life Assurance, Tokojaya Lao Assurance)
	진출방안	- 다양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외국계 기업 대상 B2B 마케팅 - 리스크 경감을 위한 각종 사회 통계를 획득 필요
품목명 3		
운송 서비스	선정사유	- ASEAN 물류 허브 요지임에도 물류 서비스 기반이 매우 제한
	시장동향	- 라오스는 ASEAN 물류 허브를 목표로 전국에 물류 시설을 개발 중이며, 간편하고 효율적인 운송 서비스 개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 라오스 정부는 우체국 운송 및 집배 서비스의 온라인 관리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우체국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설정함
	경쟁동향	- 우체국, TNT, DHL, PT Air cargo, OCS 등의 대형 회사 및 HoungAloune, Kienkay, Xangnoy 등의 중소 운송 서비스 존재 - 식품배달업체로는 Foxpress, Loca 등이 있음
	진출방안	- 대규모 창고·콜드체인 구축 등 현지에는 없는 특화된 체계 도입 - Door-to-Door 서비스로 수요층에 간편성 어필 필요

품목명 4		
사교육 서비스	선정사유	- 중고소득층의 경우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에 보낼 정도로 교육열 높음 - 미흡한 교육 시스템 강화, 초기에 시장 선점 가능
	시장동향	- 젊은 인구가 많아 서비스 수요층이 넓은 편임 -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고 개인교습 등 사교육 서비스가 영세 - 2년제 대학이 영어교육기관으로 인식될 만큼 비즈니스형 기관 부재
	경쟁동향	- 개인교습교사, 일부 College에 사교육 수요가 집중
	진출방안	- 국제기구 개발협력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한국에서 사용 중인 교수법 등을 활용하여 교육역량 향상에 타깃 - CSR을 활용하여 라오스 교육 수요층 마케팅 활용
품목명 5		
관광 서비스	선정사유	- 관광업은 라오스의 중점산업으로, 예코투어리즘을 성장동력으로 설정 - 2024년이 라오스 방문의 해로 선정된 만큼, 관광 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수요 예정
	시장동향	- 미비한 기반시설, 지역별 대표 관광자원 부족, 낮은 서비스 품질 - 관광 예약 플랫폼, 여행 상품 기획 및 판매 플랫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개발 등이 향후 동 분야의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음
	경쟁동향	- 관광 부문에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거의 전무함
	진출방안	- Facebook 등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실시 - 라오스 문화정보관광부 등 관공서/지자체 연계 캠페인 추진 - 태국·베트남 등 인근 관광 인기국과의 투어를 결합한 관광상품 개발
레저(골프) 서비스	선정사유	- 최근 방영된 골프 예능 방송을 계기로 여행 테마가 배낭여행에서 골프여행으로 변화하는 추세 - 갖춰진 시설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었으나, 최근 한국인의 수요가 급증
	시장동향	- 비엔티안 중심 기준 접근성 좋은 골프장 5곳 위치 - 한국 노하우와 자본이 들어간 골프장 3곳 운영 -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항공편이 점차 늘어갈 예정
	경쟁동향	- 태국, 필리핀, 베트남
	진출방안	- 골프 레슨이나 아카데미 등은 항공편 확장에 따라 높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골프웨어나 액세서리는 한류 스타나 골프 스타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접근 필요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	• ICT·소비재 등 무역사절단 (연간 5회) -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	분기 1~2회/ 비엔티안
	• 라오스 O2O 유통망 입점지원사업	연중/비엔티안
	• 라오스 K-CON ACCESS 사업	하반기/비엔티안
	• 라오스 프랜차이즈 진출 상담회	상반기/비엔티안
프로젝트 경제협력 확대 사업	• 2023/24년 '라오스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운영체계 개선' KSP 프로젝트 -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	- 착수보고회 : 1분기/비엔티안 - 중간보고회 : 2~3분기/서울 - 최종보고회 : 4분기/비엔티안
	• 2023/24년 '라오스 인증체계 개선방안 수립' KSP 프로젝트 -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	- 착수보고회 : 2분기/비엔티안 - 중간보고회 : 3분기/서울 - 최종보고회 : 4분기/비엔티안
투자진출기업 지원사업	• 투자진출기업 정례 세미나	분기 1회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라오스 정기국회(1차)	3~4월	
라오스 정기국회(2차)	10~11월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경제 행사	일정(잠정)	비고
라오 비즈니스 포럼	3월	라오스 상공회의소(LNCCI)-라오스 산업통상부(MoIC) 공동 주최

주요 법령	일정(잠정)	비고
탄소배출권 운영에 관한 시행령	상반기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전시회	일정(잠정)	비고
Lao ICT Expo	미정	ICT 관련 전시회
LaoRealestate Expo	미정	라오스 부동산 투자 관련 전시회
LaoBuild	2024.9.28.~30	국제 건축 건설 관련
LaoWater	미정	국제 수자원 및 하수처리 기술 관련 전시
LaoEnergy	2024.9.28.~30	전력, 송배전 및 엔지니어링 관련 국제 무역전시회
LaoHotel	2024.9.28.~30	호텔, 식당, 케이터링 관련 국제 무역전시회
Vientiane International Motor Expo	미정	자동차 관련 국제 전시회
LaoFood	2024.1.24.~28	국내외 식음료 전시회
LIVAR	미정	급/배기, 환풍, 공기 조화, 냉장/냉동 기술 국제 전시회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박세연	과장	비엔티안 무역관	070-7735-9545	laoskotra@kotra.or.kr

2024 라오스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